“비빔밥에 담아 전하는 佛法”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전주 황방사 주지 지호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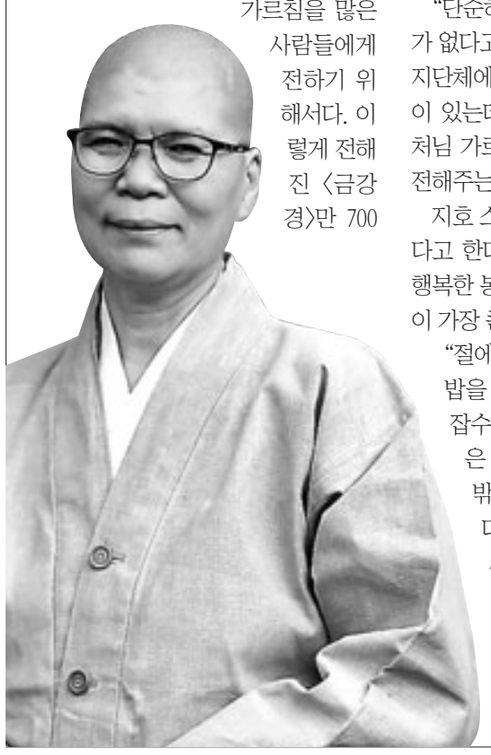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네요. 신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어 힘닿는 데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4년 전인 2014년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덕진공원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비빔밥 공양을 시작한 전주 황방사 주지 지호 스님.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비빔밥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스님은 “처음에는 한 번만 하자고 시작한 일이지만 자원봉사에 동참하는 신도들이 좋아하고 즐겁게 뜻을 모아 중단할 수 없었다”고 그간 활동을 설명했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마다 진행하는 황방사의 덕진공원 급식봉사는 200인분가량의 식사를 준비한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급식을 마무리하려면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

“처음에는 식기도 없고 취사도구를 마련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큰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특히 신도들이 모두 자기가 맡은 채소며 나물을 준비하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양을 준비하고 있죠.”

지호 스님은 급식봉사가 이제는 단순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됐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봉사하는 날에 꼭 챙겨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금강경〉이다. 금강경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전해진 〈금강경〉만 700권에 이른다.



“무조건 경전을 나눠주지는 않아요. 원하는 사람에게만 전해주지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열심히 읽겠다는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어요.”

사실 황방사는 살림이 넉넉한 절은 아니다. 작은 토굴 임법당인 데다 신도가 많은 편도 아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요사채 지붕에서 비가 샐 정도로 낡은 건물에서 생활했다.

“솔직히 불사와 봉사를 놓고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 편하자고 불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남을 위한 봉사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도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협조해서 비빔밥 봉사하는 날이 기다려지기도 해요.”

황방사 비빔밥 봉사에 동참하는 불자들은 15명 남짓이다. 쌀은 공양미로 충당하고 국거리만 절에서 준비한다. 나머지 비빔밥에 들어가는 신선한 채

급식하며 〈금강경〉 법보시
작은 토굴 살림서 정재 모아
“공양 나누며 봉사, 행복”

소들은 모두 신도들이 각자 도맡아 마련한다. 이처럼 각자 일에 최선을 다하는 황방사 불자들은 덕진공원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에나 주저 없이 달려간다. 지역 경로당에서 경로잔치라도 열리면 신도들과 함께 동참한다. 한옥마을 태조어진 이운 행사에는 3,000인분의 비빔밥 공양을 하기도 했다.

“단순하게 봉사만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종교나 복지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곳은 많이 있는데, 저는 무료급식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호 스님은 큰 욕심이나 바람이 없다고 한다. 단지 공양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봉사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절에 공양올린 신도들이나 비빔밥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맛있게 잡수시는 분들이나 모두 하나같은 마음이니 봉사가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봉사를 거르지 않았어요. 이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일을 행복하게 하며 살길 기원합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다문화 가족 보듬는 지역 불교계

자비신행회, 다문화 여성 요리 교실
좋은이웃, 외국인 근로자 봉사활동
은해사, 다문화 가정 지원 MOU

추석을 한 달 여 앞두고 전국 곳곳에는 벌써부터 한가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이번 연휴는 예년보다 길어 가족들과 특별한 일정을 계획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진 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이웃 중에는 타향살이로 인해 연휴 때면 더욱 큰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바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한국에서 새 식구들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떨칠 수 없는 그들. 불교계가 추석을 앞두고 나눔 및 체험 행사를 다채롭게 열고 이들의 입가에 미소를 선사하고 있다.

다문화 요리강좌



광주 다문화여성 25명
불고기 · 된장국 만들어

거리청소 봉사



완주 외국인 노동자 33명
완주군 거리청소 앞장

다문화 템플스테이



영천 25세대 1박 2일간
불교문화 체험

자비신행회 다문화 요리강좌 개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 가정 요리 교실이 열렸다. 광주의 대표적 신행단체인 (사)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지난 9월 4일부터 8주에 걸쳐 ‘다문화 여성을 위한 행복한 가정요리 교실’을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요리 교실은 다문화 여성들이 살림을 꾸리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한국의 가정 요리를 배우는 무료과정으로, 베트남 · 캄보디아 · 중국 · 일본 등 25명의 다문화가정의 주부가 참여했다.

강좌는 매주 2~3개 한국의 대표적 가정요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날 개강식에는 불고기, 된장국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섭 사무처장은 “요즘 TV쿡방이 유행인데, 참가자들도 TV에서만 보던 한식 만들기에 너무 재밌어 한다. 향후 잘하는 사람을 선발해 중 · 고급반을 운영해 다문화교육에서 한국요리 강사로 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문화가족을 위한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광주 동구청의 추천으로 선발된 주부들이 참여한다.

외국인 노동자 거리청소 봉사활동

완주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리청소 봉사활동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좋은 이웃(대표 정용기 포교사)’는 9월 3일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과 상가 거리에서 거리청소봉사활동을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출신 21명, 우즈벡키스탄 5명, 베트남 출신 근로자 5명등 총 33명이 참가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100 l 들이 6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휴일을 반납하고 거리청소에 나선 이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거리청소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인근 마트주민은 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간식으로 건네고, 전북국제교류센터에서는 햄버거와 음료수를 제공하며 격려했다.

정용기 포교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가별로 거리청소에 동참하고 있다”며 “타국생활에 힘들어 하면서도 노동자들이 즐겁게 참여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은해사, 다문화 가구 초청 템플스테이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 신도회와 영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9월 2일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영천지역에 거주하는 600여 세대 다문화 가구 중 25세대를 초청, 1박 2일간의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주지 돈관 스님은 다문화 가정 참여자들에게 “산사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쌓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은해사 신도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비나눔’의 일환으로,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템플스테이,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상호 연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손문철 대구지사장

산사에 들리는 ‘가을 오는 소리’

익산 심곡사, 제6회 떡목음악회 개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익산 미륵산 심곡사에서 ‘가을이 오는 소리’ 떡목음악회가 열렸다.

익산 심곡사(주지 정안)는 9월 2일 경내 떡목공연장에서 ‘희망, 새로운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개그맨 박범수 씨 사회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가수 변진섭과 양하영 씨가 출연해 ‘홀로 된다는 것’ ‘가슴앓이’ 등 서정적인 곡을 선사했다. 또 나현아, 머지밴드, 레이디티, 팝페라가수 김명온, 명창 임화영 씨의 공연과 교방춤 전수자 한정희 씨 등의 춤사위가 어우러져 세대 간 두루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펼쳐졌다.

올해로 6회째를 맞으며 익산지역을 대표하는 산사음악회로 자리 잡은 심곡사 떡목음악회는 2,000여 명의 지역민과 불자들이 운집해 자연과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참여한 500여 불자 대중들은 초가을 산사의 정취를 마음껏 누렸다.

심곡사 회주 화평 스님은 “떡목공연장의 역사적 의미와 세대 간 통합을 위해 판소리와 전통무용,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무대를 꾸몄다”며 “가을의 초입에선 산사의 정취에 취해 보시길 바란다. 또 함께 불법 홍포를 발원하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국사 소녀상 어루만지는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9월 2일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를 찾아 경내에 자리한 소녀상의 발을 어루만지고 있다. 군산 동국사는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로 일본 조동종 참사문비(참회와 반성의 비)와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소녀상은 일제 말기 우리나라 17세 전후 여학생이 한복 차림의 맨발로 일본쪽을 바라보는 형상을 제작한 것이다.
이 소녀상은 1000여 명의 성금으로 모인 1억여 원이 투입됐으며, 2015년 8월 전국에서 11번째로 건립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